

# 호순신(胡舜申)의 생애와 저술에 관한 연구

오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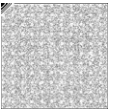
동방대학원대학교 도서관

투고일자 : 2011. 06. 21 · 심사일자 : 2011. 07. 21 · 게재확정일자 : 2011. 08. 08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기론 풍수서인 『지리신법』의 저자 호순신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 고찰하였다. 호순신(胡舜申)의 자는 여가(汝嘉)이다. 1091년 6월 6일에 적계(績溪)에서 호함(胡咸)의 아들로 태어났다. 전란을 피해 가족과 함께 고향 적계를 떠나 호주 귀안현(湖州 歸安縣)에 정착했다. 40세를 넘겨 형의 음보로 관직에 올라 엄주부 녹사참군(嚴州府 錄事參軍), 지소산현사(知蕭山縣事)를 지냈으며 조의대부 통판서주(朝議大夫 通判舒州)에 이르러 태주 송도관(台州 崇道觀)을 맡아보다가 치사했다. 부친상을 지낸 후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하였으며, 세상에 전하는 『강서지리신법(江西地理新法)』이 그에게 나온 것이라고 한다. 74세에 「오문충고(吳門忠告)」를 지어 소주성(蘇州城)의 서문(胥門)과 사문(蛇門)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1177년 3월 9일 향년 87세로 죽어 호주 귀안현에 묻혔다. 가족으로 형 호순척(胡舜陟)과 조카 호자(胡子)가 알려져 있다. 자식으로 아들 호위(胡偉) 1명이 있으며 광록대부 강서선무사(光祿大夫 江西宣撫使)를 지냈다. 저술로는 일기류인 『을사사주록(乙巳泗州錄)』, 『기유피난록(己酉避亂錄)』과 풍수지리 관계저술인 『음양비용(陰陽備用)』, 『지리신법(地理新法)』, 「오문충고」가 전해진다.

※ 주제어 : 호순신(胡舜申), 지리신법(地理新法), 음양비용(陰陽備用), 오문충고(吳門忠告), 풍수지리서



## 서론

풍수지리는 동양의 전통지리학으로서 땅의 형상과 지기(地氣) 등을 살펴 용도에 맞는 입지에 선정하거나 음양 오행설 등의 사상을 기반으로 선정된 입지 안에서 공간을 배치하고 비보진압(裨補鎮壓)과 같은 일련의 풍수 행위를 행하여 피흉추길(避凶追吉)하고자 하는 학문이다.<sup>01</sup>

조선시대 관상감(=서운관)에서 풍수지리를 맡아보던 관원인 지리학(地理學)의 과시(科試)와 취재(取才)에는 일반적으로 『청오경(靑鳥經)』, 『금낭경(錦囊經)』, 『호순신(胡舜申)』, 『명산론(明山論)』 4종의 풍수지리서가 사용되었다. 이 중에서 『호순신』은 『지리신법(地理新法)』의 다른 이름이다.

조선왕조실록과 개인문집을 살펴보면 지관(地官)과 승려 이외에 유학자들도 풍수지리를 공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유학자들은 정자(程子)의 「장설(葬說)」과 주자(朱子)의 「산릉의장(山陵議狀)」을 지침으로 삼아 풍수지리를 다루었는데, 두 저작은 용(龍, 능선), 혈(穴, 터), 사(砂, 주변 산), 수(水, 물)라는 풍수지리 각 요소의 외적 현상과 변화를 보는 형세론적(形勢論的) 입장에서 쓰인 저술이다.

이에 반해 『지리신법』은 풍수지리 각 요소의 흐름을 패철(佩鐵)로 측정하여 혈(穴)을 찾고 좌향(坐向)을 결정하는 이기론적(理氣論的) 입장에서 쓰인 풍수지리서이다. 게다가 『지리신법』은 풍수지리와 사주 이론을 접합시키고 있는 바 사주학에 대한 이해 없이는 활용이 불가능하다. 또한 현재 이기론 풍수학파의 주류에서 쓰지 않는 홍범오행(洪範五行)을 사용하여 혼란을 가중시킨다.<sup>02</sup> 이러한 이유로 조선시대 풍수 논쟁에서 『지리신법』은 항상 논란거리가 되었으며, 형세론 풍수가와 유학자들로부터 중국이 주변국을 망하게 할 목적으로 쓴 위서(僞書), 즉 멸만경(滅蠻經)으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 외에도 『지리신법』이 홀대받게 된 배경에는

저작의 진위 논란이 있다. 『지리신법』은 호순신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고, 사고전서와 같은 유서(類書)와 중국 정사의 예문지에서도 『지리신법』에 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많은 풍수지리서가 저자 미상이거나 명인에게 가탁하였지만 『지리신법』은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진위여부가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 묘지를 선정하는 음택풍수(陰宅風水)에만 치중된 까닭으로 풍수지리는 최근까지도 학문으로서 가치와 역할에 대해 많은 부분 폄하되어 왔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최창조의 자생풍수론을 시작으로 학문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하는 노력을 통하여 제도권 학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풍수지리서 원전을 서지학적으로 고증하여 정본(正本)을 선정하고 이를 번역·주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 역시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지리신법』에 대한 서지학적 고증에 앞서 그 저자인 호순신의 생애와 저술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더 다양한 사료를 수집하고 문헌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호순신의 생몰년과 행장을 밝혀 실존 인물임을 입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행연구들의 오류를 바로잡고 기존 연구에서 미진하였던 부분에 대해 추가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밝혀진 연구결과를 이후 진행될 『지리신법』의 서지학적 고증 연구에 사용될 준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 선행연구의 고찰

『지리신법』에 대한 연구는 지리학관(地理學官)의 시취서(試取書)로 사용된 4종의 풍수지리서 중에서 가장 미흡한 편이다. 지관 전기응(奎基應)의 자문을 받아 조선의

01 김두규, 2008, 『풍수강의』, 비봉출판사, pp.48~69.

02 김두규, 2004, 『지리신법』(개정판), 비봉출판사, p.323.

풍수 전반에 대해 고찰한 무라이야마 지준(村山智順)의 저서<sup>03</sup>가 최초의 연구이며, 김두규<sup>04</sup>가 규장각본(奎12707)을 저본(底本)으로 번역한 이후로 본격적인 연구가 시도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풍수지리학적 접근이며 『지리신법』에 대한 서지학적 고증이나 저자 호순신에 대한 고찰은 미흡하다.

안영배<sup>05</sup>는 『지리신법』을 포함한 4종의 지리학관 시취서에 나타난 기(氣) 개념을 비교·분석하였다. 조인철<sup>06</sup>은 풍수 향법(向法)의 제이론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지리신법』이 느슨한 논리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지리신법』이 조선왕조의 대표적 향법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에는 태조의 추인이라는 역사문화적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았다. 남오우<sup>07</sup>는 『지리신법』의 해석에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는 개념을 심층 분석하고 적용사례를 살펴보았다. 김철완<sup>08</sup>은 조선왕릉의 좌향(坐向)을 호순신의 이론과 삼합이론(三合理論)을 중심으로 분석하면서 호순신의 이론은 조선 초기에는 비교적 잘 적용되었으나 중·후기부터 어긋나는 좌향이 많이 발견된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풍수 논문에서 『지리신법』을 개괄적으로 다루었으나 주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위 연구들이 『지리신법』을 서지학적으로 고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두규는 통행본(通行本)이 고종 3년(1866)에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이며 규장각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였다.<sup>09</sup> 2001년 초판 발행 당시에는 1969년 경인문화사에서 『한국풍수지리총서』라는 서명으로 영인한 장서각 필사본(K3-424)을 저본으로 하였으나<sup>10</sup>, 2004년 개정판을

발행하면서 규장각 필사본(奎12707)으로 저본을 바꾸고 규장각 해제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奎12707은 목판본이 아닌 필사본이며 희현당철자본(希顯堂鐵字本)<sup>11</sup>의 '병인중간(丙寅重刊)'이라는 간기까지 등서(謄書)한 판본으로 간사년 추정 역시 잘못되었다. 안영배, 남오우는 김두규의 논문을 그대로 재인용하였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지리신법』 판본은 필사본을 포함하여 총 6종 10부가 한국에 현전하고 있다. 각 판본의 간사년을 추정하여 선후관계를 고찰하고 원문교감을 통하여 정본(正本)을 파악하는 연구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저자 호순신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두규는 『고금도서집성』의 기록을 인용하여 소흥년간(紹興, 1131~1162년)에 생존하였던 사람으로 소개하고, 호순신의 정확한 생존 연대나 활동에 대해서는 고증과 연구 작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sup>12</sup> 안영배, 조인철, 남오우는 김두규의 논문을 그대로 재인용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비교할 때 장성규의 논문<sup>13</sup>은 『지리신법』을 서지학적으로 고증하고 저자 호순신을 고찰한 진일보된 연구이다. 장성규는 『고금도서집성』을 벗어나 『오군지(吳郡志)』 등의 지방지,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형 호순척(胡舜陟, 1083~1143년)과 조카 호자(胡仔, 1110~1170년)에 대한 선행연구 등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였다. 장성규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호순신의 생몰년을 1091~1181년(?)으로 추정하고 연보를 작성하였다.

03 村山智順, 1931, 『朝鮮の風水』, 朝鮮總督府, pp.334~337.; 村山智順, 1990,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민음사, pp.279~282.; 村山智順, 1991, 『한국의 풍수』, 정현우 역, 명문당, pp.262~301.

04 김두규, 2001, 『지리신법』, 장락, 2004, 『지리신법』(개정판), 비봉출판사

05 안영배, 2003, 『조선조 풍수학 4대고사과목에 나타난 기개념 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6 조인철, 2005,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07 남오우, 2008,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08 김철완, 2009, 『조선왕릉에 관한 풍수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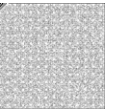
09 김두규, 2004, 앞의 책, p.335.

10 부록으로 영인된 『지리신법』 원문과 첫 면 7행 8자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미(未)의 오자인 매(沫)를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1 정리자체철활자(整理字體鐵活字)라고도 하며 규장각에 소장된 奎2219의 해제를 기준으로 희현당철자로 적었다. 윤병태는 이 활자를 희현당철자로 명명하고 '병인중간(丙寅重刊)'의 간기가 있는 『청오경』, 『호순신』, 『명신론』 풍수지리서 3종의 간사년을 고종 3년(1866)으로 추정하였다(윤병태, 1990, 『희현당철자고』 『서지학연구』 5·6합집, pp.23~55.). 하지만 사실 간기의 병인년(丙寅年)은 순조 6년(1806)을 의미한다.

12 김두규, 2004, 앞의 책, pp.321~322.

13 장성규, 2010, 『조선왕조실록의 풍수지리문헌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② 소주성(蘇州城)의 서문(胥門)과 사문(蛇門)에 대한 호순신의 풍수지리 저술인 「오문충고(吳門忠告)」에 대해 언급하였다.

③ 한국의 『지리신법』을 호순신의 다른 저작인 『음양비용(陰陽備用)』의 일부가 분책된 것으로 보았다. 장성규의 논문이 기존 연구와 비교할 때 진일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조선왕조실록에 언급된 풍수문헌 연구’라는 큰 주제 안에서 하나의 장으로만 『지리신법』과 저자 호순신을 다루고 있어 더 폭넓고 깊게 연구되지 못하여 미완의 연구로 평가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성규 등의 선행연구에 나타난 오류들을 바로잡고, 아래와 같이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 ① 『적계금자호씨가보(績溪金紫胡氏家譜)』를 통하여 호순신의 정확한 생몰년을 밝힌다.
- ② 다양한 사료를 통하여 그의 관직생활을 고찰한 후 한국에 현전하는 『지리신법』에 적힌 호순신의 관직 명과 비교·대조하여 오기를 교정한다.
- ③ 『지리신법』의 저작시기를 추정하여 이후 연구에서 진행될 다른 풍수지리서와의 선후관계 및 국내 유입시기 고찰에 대한 준거로 활용한다.

## 호순신에 관한 기록 고찰

### 1. 『오군지(吳郡志)』

호순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기록은 『고금도서집성』<sup>14</sup>이다. 이 기록은 『소주부지(蘇州府志)』를 인용한 것인데, 『소주부지』 역시 범성대(范成大, 1126~1193년)의 『오군지』를 요약하여 작성한 것이다. 필자가 「고소지(姑蘇志)」 등 소주(蘇州, 현 강소성 소주시)

의 지리지들을 확인한 결과 모두 『오군지』를 1차 자료로 작성되었으며 문장의 차이는 있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오군지』에 실린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개서사문의(開胥蛇門議)」。 호순신이 쓴 것으로 그 말이 제법 상세하여 구하여 심는다. 순신은 순척(舜陟)의 동생으로 풍수와 음양술에 능하여 세상에 전하는 『강서지리신법(江西地理新法)』은 호순신에게 나온 것이다. 소흥년간(紹興, 1131~1162년)에 적계(績溪)에서 오(吳, =蘇州)로 이주하였다. 한가한 날에 사방의 성곽을 다니면서 풍수술로 살펴보았는데 사문(蛇門)이 닫힌 것이 맞지 않다 생각하여 「오문충고(吳門忠告)」 한 편을 지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성(吳城, =소주성)은 건해산(乾亥山)을 주양산(主陽山)으로 하는 것이 맞다. …(오문충고 내용중략)…

건도갑신(乾道甲申, 1164년) 겨울 직미각 심도(直秘閣 沈度)가 순신의 옛 동료와 함께 오군(吳郡)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 글을 알고는 좋다고 생각했다. 다음해 봄에 백성들이 이를 청하니 심도(沈度)는 즉시 관리에게 그곳을 둘러보라고 명하였다. 12월 을축일에 사문(蛇門)을 열기로 하고 이미 정한대로 인원을 배치했다. 성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모두 삼태기와 삼을 갖추고 하고 기한을 정해 일하게 하였다. 은연중에 불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생겨나 백성들을 선동하니 심도(沈度)는 비방을 피하려고 공사를 멈추었다. 순희을미(淳熙乙未, 1175년) 봄에 비각수찬 한언고(秘閣修撰 韓彦古)가 오군(吳郡)을 맡았다. 그해 가을 백성들이 이전의 청을 다시 올렸는데 언고(彦古)가 흔쾌히 이를 따랐다. 9월 12일 경인일에 일을 시키기로 하였으나, 8월에 언고(彦古)가 파직당했다. 이때 순신의 나이 85세였다.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며 “이처럼 하늘이 준 시기와 사람의 일은 맞추기 어렵구나”라고 말하였다. 다시 후서(後序)를 남겨 다음 사람(=군수)에게 알려려고 했으나 별 의미가 없어 적지 아니한다.<sup>15</sup>

14 『古今圖書集成』 博物彙編 藝術典 堪輿部 名流列傳 : “据 『蘇州府志』 載 : 胡舜申, 紹興間, 自績溪徙吳, 通風水陰陽之術, 世所傳江西地理新法出於舜申。嘗行四郭而相之, 以爲蛇門不當塞, 作吳門忠告一篇”

15 『吳郡志』, 권3, 城地案 : “開胥蛇門議, 胡舜申所作, 其說甚詳, 今具載之。舜申乃舜陟之弟也, 通風水陰陽之術, 世所傳江西地理新法, 出於舜申。紹興間, 自績溪徙居吳。暇日以其術行四郭而相之, 以爲蛇門不當塞, 作吳門忠告一篇。曰, 吳城以乾亥山爲主陽山是也。… (吳門忠告 내용중략)… 乾道甲申冬, 直秘閣沈度守郡, 與舜申舊同寮, 知其說, 心善之。明年春, 邦人以爲請, 度即命官吏行視其處, 將以十二月乙丑啓蛇門, 部置已定。會屬邑輒呼帶郭民戶, 悉具釜錡, 剋期赴役, 號召隱然有異意者, 以爲擾民, 度避諍乃止。淳熙乙未春, 秘閣修撰韓彦古起復爲守。其秋, 邦人申前請, 彦古欣然從之。卜以九月十二日庚寅差役, 八月, 彦古罷。是時舜申年八十五矣, 慨然惋惜, 謂天時人事難合如此。復爲後序告來者, 詞贅不錄。”

여기서 형 순척은 남송의 항금명신(抗金名臣) 호순척을 말한다. 호순신과 그의 형제들은 적계(현 안휘성 선성시 적계현)에서 태어났으나 소흥년간(紹興, 1131~1162년)에 오로 이주하였다. ‘오(吳)’라고만 표기가 되어있으나 『오군지』에 실린 기록이므로 소주의 옛 이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오군지』에는 「오문충고」의 전문이 실려있다. 장성규는 ‘왈(曰)’ 이후의 부분을 모두 「오문충고」로 보고 호순신이 순희을미(淳熙乙未, 1175년)에 「오문충고」를 지었다고 했으나<sup>16</sup> 이는 틀린 것이다. 「개서사문의」의 내용을 참고할 때 「오문충고」는 건도갑신(乾道甲申, 1164년)에 쓰여졌고, 「개서사문의」에서 호순신이 순희을미(淳熙乙未, 1175년)에 85세였다고 적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 2. 『사고전서총목』

『사고전서총목』의 기록은 호순신의 다른 저서인 『을사사주록(乙巳泗州錄)』과 『기유피난록(己酉避亂錄)』에 관한 해제이다.

『을사사주록(乙巳泗州錄)』. 절강 순무(浙江巡撫)가 수집하여 올린 책.

송나라의 호순신이 썼다. 순신은 적계 사람으로 순척의 형이며 관직이 서주통판(舒州通判)까지 올랐다. 선화을사(宣和乙巳, 1125년)에 순신은 사주(泗州)에 있으면서 주면(朱勳, 1075~1126년) 부자와 왕래하며 휘종(徽宗)이 사주(泗州)에 거동한 것을 보았다. 이것을 기록으로 남겼으나 그 내용이 보잘 것 없어 채택할 수 없다.<sup>17</sup>

『기유피난록(己酉避亂錄)』. 절강 순무가 수집하여 올린 책.

송나라의 호순신이 썼다. 건염기유(建炎己酉, 1129년)에 금나라 병사가 평강(平江, =蘇州)을 공격했을 때 선무사 주망(宣撫 周望)은 성을 버리고 후퇴했다. 이때 순신의 형 순척이 참모가 되어 가족을 데리고 피난했는데 순신이 다음에 이를 기록했다. 그 내용이 한세충(韓世忠)을 제법 홍보고 있으며 끝부분에 다시 세충(世忠)이 기생을 데리고 다닌 일을 실었다. 감정적인 말들이 있어 반드시 진실된 기록은 아니다. 이 책과 『을사사주록(乙巳泗州錄)』은 왕명청(王明清)의 『옥소신지(玉照新志)』에 그 전문이 실려 있는데 후인들이 왕명청의 책에서 글을 따로 뽑아냈다.<sup>18</sup>

『을사사주록』 해제는 순신을 순척의 형(舜陟之兄), 『기유피난록』 해제는 순척을 순신의 형(舜申之兄舜陟)이라고 적고 있어 혼란을 준다. 장성규 역시 순신을 순척의 형으로 쓴 구수삼(邱樹森)이 쓴 『中國史學家辭典(중국사학가사전)』을 인용하면서도 다른 자료들을 참조할 때 순척은 순신의 형이라고 하였다.<sup>19</sup> 필자 역시 『을사사주록』 해제가 틀린 것이며 구수삼(邱樹森)이 잘못된 해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왕명청(王明清, 宋代)의 『옥소신지(玉照新志)』<sup>20</sup>에는 『기유피난록』, 『을사사주록』의 전문이 실려있다. 호순신은 『을사사주록』에서 자신이 선화을사(宣和乙巳, 1125년)에 사주(泗州, 현 강소성 회안시 우이현)의 교수청에 살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sup>21</sup>, 『기유피난록』을 쓴 건염기유(建炎己酉, 1129년)에는 평강(=소주)에 있었으므로 소흥년간 이전인 건염년간(建炎, 1127~1130년)에 이미 적계를 떠나 소주로 온 것으로 보인다.

## 3. 『적계금자호씨가보(績溪金紫胡氏家譜)』

호순척이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에 봉해지면서

16 장성규, 앞의 논문, p.167.

17 『四庫全書總目』 권64, 史部, 傳記類存目六. “乙巳泗州錄. 浙江巡撫采進本. 宋胡舜申撰. 舜申, 績溪人, 舜陟之兄. 官至舒州通判. 宣和乙巳, 舜申在泗州, 親見朱勳父子往來及徽宗幸泗州事. 因爲此錄, 紀載寥寥, 無可採擇”

18 위의 책, “己酉避亂錄. 浙江巡撫采進本. 宋胡舜申撰. 建炎己酉, 金兵攻平江, 宣撫周望出走. 舜申之兄舜陟時爲參謀, 舉家避難. 舜申次爲此錄. 其言頗詆韓世忠, 末復載世忠攜妓一事. 似有宿憾之言, 未必實錄. 此書與乙巳泗州錄, 王明清玉照新志皆全載其文. 蓋即後人於明清書內鈔出別行也”

19 邱樹森, 1990, 『中國史學家辭典』, 河北教育出版社, p.290.(장성규, 앞의 논문, 158쪽에서 재인용)

20 『文淵閣四庫全書』 권1038, 子部, 小說家類에 실려있다.

21 王明清, 『玉照新志』 권3, 『乙巳泗州錄』, “宣和乙巳, 予家寓居泗州之教授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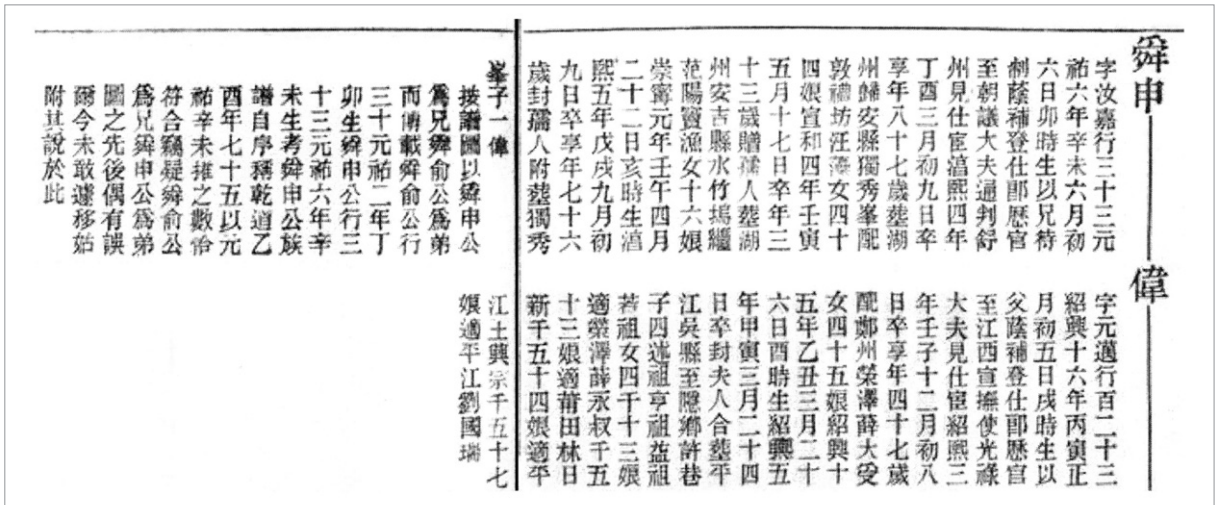


사진 1 가보 본계에 나타난 호순신 기록

그의 가문은 금자호씨(金紫胡氏)라고 불리게 된다. 『적계 금자호씨가보』(이하 가보)에 나타난 호순신에 관한 기록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호순척이 소흥임술(紹興壬戌, 1142년)에 쓴 「소흥시수 원보서(紹興始修原譜序)」에 나타난 동생에 대한 언급
- ② 호순신이 건도을유(乾道乙酉, 1165년)에 쓴 「건도중수 가보서(乾道重修家譜序)」에 나타난 자신에 대한 언급
- ③ 아들 호위(胡偉)가 순희 8년(淳熙, 1181)에 쓴 「순희속수보서(淳熙續修譜序)」에 나타난 아버지에 대한 언급
- ④ 가보 본계(本系)에 나타난 호순신에 대한 기록. 호순신의 생몰년과 약력, 부인의 약력과 생몰년, 가족 사항, 그리고 보도(譜圖)에서 호순유(胡舜俞, 1087~1140년)가 동생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형임을 알리는 내용 이후 4장에서 가보의 기록을 다룰 것이므로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 4. 기타 지방지

지방지의 기록들은 명사(名士), 전기(傳記), 예문지(藝

文志) 등의 기록들이다. 호순신을 직접 다룬 것은 많지 않고 형 호순척과 조카 호자에 대한 기록에서 호순신이 언급되는 수준이다.

장성규가 참고한 지방지는 휘주(徽州), 호주(湖州), 소주(蘇州) 세 지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필자는 이 지역의 다른 지방지와 호순신이 통관(通判)을 지낸 서주(舒州)의 지방지를 추가로 확인하였다. 이 중에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타난 지방지 기록은 『건륭호주부지(乾隆湖州府志)』이다.

호순신, 『기유괴난록』. 순신은 순척의 동생이다. 송나라가 남으로 내려올 때에 귀안현 사촌(歸安縣 射村)에 정착하였다. 동생 순거와 함께 마을의 스승이 되었다. 로지(勞志)에서 인용.<sup>22</sup>

『건륭호주부지』가 참고하여 인용한 로지(勞志)는 『성화호주부지(成化湖州府志)』의 다른 이름으로 편찬자로 율속(勞鉞續)에서 따온 것이다. 성화년간(成化, 1447~1487년)에 편찬되어 비교적 호순신의 생몰년과 가까운 시점에 작성된 자료이지만 해당 권호가 결실되어 확인이 불가능하다.

22 『乾隆湖州府志』 권45, 著述: “胡舜申己酉避亂錄。舜申舜陟之弟。宋南渡時寓居歸安之射村與。第舜舉俱爲郡師。勞志”

## 호순신의 생애

본 논문은 가보를 중심으로 다른 문헌자료를 비교·대조하여 ①인명표기, ②활동시기와 생몰년, ③가계도, ④관직생활, ⑤연보의 순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1. 인명표기

한국에서는 호순신의 한자표기로 ‘胡舜申’, ‘胡舜臣’ 두 가지를 혼용하고 있다. 이는 최초로 호순신을 언급하였고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태조 2년(1393) 12월 11일의 기록이 호순신의 한자표기를 ‘胡舜申’이 아닌 ‘胡舜臣’으로 기록하고 있어 발생한 문제인데, 이를 인용하여 재생산된 기록들로 인해 두 한자표기가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왕조실록』에 서명 또는 인명으로 사용된 ‘호순신’이라는 표기는 총 37번 나타나는데 ‘胡舜申’이라 표기된 것이 대부분이고, ‘胡舜臣’으로 표기된 기록만을 나열하면 <표 1>와 같다.

<표 1>를 살펴보면 풍수지리에 해박했던 하륜과 최호원 역시 ‘胡舜申’이 아니라 ‘胡舜臣’이라고 적고 있다. 사관이 초초(初草)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글을 수정하였거나 오기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그 당시에

호순신의 한자표기가 혼용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외국의 서명이나 인명을 표기할 때 한자를 혼용하는 현상은 조선시대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승정원일기』 등의 국가기록과 개인문집을 살펴보면 호순신 한자 표기가 혼용되는 현상은 조선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조선후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류희춘(柳希春, 1513~1577년)은 『미암일기(眉巖日記)』에서 기사년(1569)에는 ‘胡舜臣’으로 표기하였으나 『지리신법』을 구한 경오년(1570)에는 ‘胡舜申’이라 표기하고 있다.<sup>23</sup> 신흠(申欽, 1566~1628년)은 『상촌집(象村集)』에서 태조실록의 사실을 언급하면서 ‘胡舜臣’을 그대로 적지 않고 교정하여 ‘胡舜申’이라 적고 있다.<sup>24</sup>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할 때 ‘胡舜臣’과 ‘胡舜申’은 동일인물이며, 조선전기에는 두 가지 한자 표기가 혼용되었으나 『지리신법』이 정착된 중·후기부터는 ‘胡舜申’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대에 와서 조선전기의 사료를 인용하면서 다시금 이 한자표기를 혼용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며 이후의 연구에서는 ‘胡舜申’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활동시기와 생몰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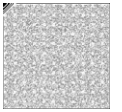
그동안 호순신은 정확한 생몰년대가 알려지지 않은 까닭에 당, 송, 명대 세 시기의 인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표 1 조선왕조실록의 호순신(胡舜臣) 표기 기록

기록의 일자	기록의 내용	내용의 출처
태조 2년(1393) 12월 11일	是宋朝胡舜臣所謂水破長生 衰敗立至之地。	하륜(河崙)의 상언(上言)
태종 18년(1418) 3월 10일	夫豈此書不及胡舜臣乎?	태종의 말을 사관이 옮겨적음
세종 15년(1433) 7월 7일	代各有人, 晉之郭璞, 元之舜臣是已。	승정원의 전지(傳旨)
성종 16년(1485) 1월 8일	胡舜臣述『地理別集』	지리학관 최호원(崔灝元)의 상소

23 류희춘, 『미암선생집』 제7권, 일기 己巳: “水破之說, 自郭璞以來, 胡舜臣獨言之”; 제8권, 일기 庚午: “胡舜申地理書一冊, 從金江來”

24 신흠, 『상촌고』 권33, 『風水家說』: “我國地術專用胡舜申。曾見祖宗朝實錄, 則大初年, 河崙執政, 建局設官, 校定風水, 而崙自總之。遂盡去他方。只崇用胡舜申 …”; 원문은 “大初年”으로 적고 있다. 태종(太宗)은 태종(太宗)을 말한다. 하지만 하륜이 기구(局)를 설치하여 풍수에 관한 글을 교정하였다는 기록은 태종이 아닌 태조 3년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구는 태조 3년(1394) 7월 12일에 설치된 음양산정도감(陰陽刪定都監)이며, 정도전, 권중화, 하륜 등 당대의 학자들과 서운관원(書雲觀員)들이 참여한 임시기구이다. 하륜은 같은 해 2월에도 왕명을 받아 풍수서(秘錄)를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주려낸 『지리비록찰요(地理秘錄摘要)』라는 책을 만드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2년(1393) 12월 11일에 “송조(宋朝)의 胡舜臣[申], 서거정(徐居正, 1420~1488년)의 『필원잡기(筆苑雜記)』에 나타난 “당나라에는 양군송(楊筠松)이 있고, 송나라에는 호순신(胡舜申)이 있다.”<sup>25</sup> 등의 국내 기록만으로도 호순신이 송대의 인물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대(唐代) 또는 명대(明代)의 인물로 잘못 알려진 원인은 현전하는 『지리신법』에 적힌 그의 직함과 잘못된 선행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현전본에 나타난 그의 직함은 ‘봉의랑통판서주군주관학사겸관내권농영전사사비어대(奉義郎通判徐州軍州主管學士兼管內勸農營田事賜緋魚袋)’와 ‘봉의랑사비어대(奉義郎賜緋魚袋)’ 2종류이다.

이중에서 ‘봉의랑사비어대(奉義郎賜緋魚袋)’라는 직함만을 본다면 호순신을 당대의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봉의랑(奉義郎)은 당대에는 종6품, 송대에는 정8품 문관에게 주어진 품계이며, 사비어대(賜緋魚袋)는 당·송대에 모두 존재했던 은전(恩典)이다. 하지만 다른 판본의 직함에 적힌 통판(通判)은 당대에는 없었던 관직으로 그가 송대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순신이 당대의 인물로 잘못 알려진 것은 통행본으로 사용된 장서각 필사본에 적힌 ‘봉의랑사비어대’라는 직함만을 풍수후학(風水後學)들이 접하면서 충분한 고찰을 거치지 않고 추정된 것으로 보인다.

무라야마 지준은 『朝鮮의風水』<sup>26</sup>에서 호순신을 명대의 인물로 보았는데 이 주장 역시 검증되지 않고 그대로 인용되어 전파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고려시대에는 호순신의 저서가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조선시대부터 인용되기 때문이다. 『조선왕조실록』 세종 15년(1433) 7월 7일에 “진(晉)의 곽박(郭璞), 원(元)의 순신(舜臣[申])”이라고 언급된 기록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무라야마 지준은

‘봉의랑통판서주군주관학사겸관내권농영전사사비어대’라는 직함을 확인하였지만, 명대에는 봉의랑의 품계와 어대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주장 역시 충분한 고찰을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

호순신의 정확한 생몰년은 가보 본계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지는 여가(汝嘉)이다. 향렬은 33이다. 원우 6년(元祐六年辛未, 1091년) 6월초 6일 묘시생이다. …(중략)… 순희 4년(淳熙四年丁酉, 1177년) 3월초 9일에 돌아가시니 향년 87세였다. 호주 귀안현 독수봉(湖州 歸安縣 獨秀峯)에 묻었다.<sup>27</sup>

앞서 순희을미(淳熙乙未, 1175년)에 호순신의 나이가 85세라고 한 「개서사문의」의 기록을 확인하였고, 스스로 「진도중수가보서」을 쓴 건도을유(乾道乙酉, 1165년)에 75세라고 밝히고 있다.<sup>28</sup> 따라서 호순신의 생년은 1091년이다. 아들 호위는 「순희속수보서」에서 순희 8년(1181)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년이 지났다고 적고 있다.<sup>29</sup> 따라서 호순신의 몰년은 1177년이다.

### 3. 가계도

장성규는 호순신의 가계도를 은해위(殷海衛)의 논문<sup>30</sup>에서 인용하였다. 은해위는 『홍치회주부지(弘治徽州府志)』의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신안문헌지(新安文獻志)』 등 다른 지방지를 참고하여 보완하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는데 가보의 기록과 맞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가보를 참고하여 가계도를 작성하고 은해위의 논문과 비교하면 <표 2>와 같다.

『홍치회주부지』는 순척에게 아들 자(仔), 앙(仰), 전(傳)

25 서거정, 『필원잡기』 권2 : “山水之說, 昉於後韓青烏子, 陶侃郭璞鑿而成之。唐有楊筠松, 宋有胡舜申, 皆碌碌小儒”

26 村山智順, 1931, 앞의 책, p.336.

27 家譜, 권2, 本系 : “舜申, 字汝嘉, 行三十三, 元祐六年辛未六月初六日卯時生。… 淳熙四年丁酉三月初九日卒, 享年八十七歲, 葬湖州歸安縣獨秀峯”

28 家譜, 「乾道重修家譜序」 : “乃作圖見示厥後年幾八十世, 舜申今年七十有五餘齡未保”

29 家譜, 「淳熙續修家譜序」 : “先公下世, 今又已四年矣。… 淳熙八年辛丑歲孟夏, 高孫正奉大夫江西宣撫使, 胡偉元邁, 熏沐拜書”

30 殷海衛, 2008, 「胡仔世家新考」, 『殷都學刊』, 2008年 4期, pp.72~75.



표 2 호순신의 가계도

		가보		殷海衛
		이름과 생년	항렬	
咸(1050~1130)	舜陟(1083~1143)	億(-)	112	僞
		仔(1110~1170)	114	仔
		傳(1118~1176)	116	仰
		仰(1128~1189)	118	傳
	舜俞(1087~1140)	僞(1108~1134)	113	僞
		僕(1119~1205)	117	
		僞(1148~1188)	124	
	舜申(1091~1177)	偉(1146~1192)	123	偉
				似
				僞
	舜舉(1093~1166)	似(1130~1193)	119	俊
		僞(1139~1200)	120	
		仿(1144~1200)	122	

3명이 순신에게 아들이 위(偉), 사(似), 근(僞) 3명이 있는 것으로 적고 있다.<sup>31</sup> 『신안문헌지』에 실린 아버지 호함(胡咸, 1050~1130년)의 묘지명은 “손자가 5명이 있는데 그 이름은 칭(僞), 자(仔), 전(傳), 준(俊)이고 1명은 아직 어리다”고 하였다.<sup>32</sup>

하지만 은혜위는 같은 논문에서 “건도년(乾道年)에 순척의 막내아들(季子) 양(仰)은 태부승(太府丞)을 지냈다”는 『신안문헌지』의 기록<sup>33</sup>도 인용하고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송사』 「호순척전」에 적힌 “俞僞有賊”를 ‘순유(舜俞)의 아들 담(僞)이 뇌물을 받았다’로 해석하면서 ‘俞’는 호순유(胡舜俞), ‘僞’은 호담(胡僞)을 의미하며 중간에 ‘子’가 빠졌거나 구두점이 잘못 찍힌 것으로 보았다.<sup>34</sup> 하지만 ‘俞僞’은 인명으로 응주(邕州)

의 지방지를 통하여 소흥년간에 지용주(知邕州)로 재임한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35</sup>

#### 4. 관직생활

호순척은 「소흥시수원보서」에서 소흥임술(紹興壬戌, 1142년)에 “동생 순신은 음보로 등사랑(登仕郎)에 올라 엄주부(嚴州府)의 녹사참군(錄事參軍)을 지내고 선교랑 지소산현사(宣教郎 知蕭山縣事)으로 승진하였다.”<sup>36</sup>고 적고 있다. 호순신은 「건도중수가보서」의 말미에서 건도을유(乾道乙酉, 1165년)에 자신을 ‘조의대부 서주부판(朝議大夫 舒州府判)으로 밝히고 있다.<sup>37</sup> 부판(府判)은 통판(通判)의 다른 이름이다. 가보 본계에서는 “대제(待制)인

31 『弘治徽州府志』 권7 : “胡舜陟, 字汝明, 號三山老人, 績溪人. …(중략)…舜陟子仔, 字元壬, …(관직생략)…仰, 字元高, …(생략)…傳, 字元輔, …(생략)…舜申子偉, 字元邁, …(생략)…似, 字元有, …(생략)…僞, 字元可, …(생략)…”

32 『新安文獻志』 권91, 朝散郎致仕胡君咸墓誌銘 : “…建炎四年八月辛亥, 以疾終於家, 春秋八十有一. …五孫曰僞仔傳俊, 其一尙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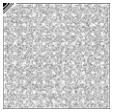
33 『新安文獻志』 권78, 胡特制 : “…乾道中, 舜陟季子仰, 爲太府丞. …”

34 『宋史』 권378, 「胡舜陟傳」: “后十八年, 復廣西經略. 以知邕州俞僞有賊, 爲運副呂源所按, 事連舜陟, 提舉太平觀”

35 『道光南寧府志』 권25, 職官志 : “知邕州 …(중략)…俞僞, 紹興中任”

36 家譜, 「紹興始修原譜序」: “第舜申, 補登仕郎, 任嚴州府錄事參軍, 擢宣教郎知蕭山縣事”

37 家譜, 「乾道重修家譜序」: “…朝議大夫舒州府判, 胡舜申汝嘉敬書”



형의 음보로 등사랑에 올라 조의대부 통판서주까지 지냈다.”<sup>38</sup> 고 적고 있다.

### 1) 등사랑 엄주부 녹사참군(登仕郎 嚴州府 錄事參軍)

등사랑(登仕郎)은 선인(選人)<sup>39</sup>의 기록관(寄祿官)<sup>40</sup>으로 정9품의 문관이다. 송녕 2년(崇寧, 1103)의 관제에서 지록사참군(知錄事參軍)에게 주어지는 기록관을 등사랑이라 하였으나, 정화 6년(政和, 1116)의 관제에서 이를 다시 수직랑(修職郎)으로 고치고 등사랑은 음보를 통하여 관직에 진출한 자들에게 주는 기록관으로 삼았다. 엄주부(嚴州府)는 건덕부(健德府)를 말하며 현 절강성 항주시 건덕시이다. 원래 목주(睦州)라 불렀으나 선화 3년(宣和, 1121)에 그 이름이 엄주(嚴州)로 바뀌었다. 녹사참군(錄事參軍)은 선인(選人) 7계급 중 여섯째에 위치한 지록사참군(知錄事參軍)으로 감옥을 관리하고 하급관리를 감찰하는 일을 맡았다.

송의 음보법에서 친족을 등사랑에 올리는 것은 정5품인 중산대부(中散大夫)부터 가능한 일이었다.<sup>41</sup> 호순척은 1129년에 종4품 휘유각 대제(徽猷閣 待制), 1135년에 휘유각 학사(徽猷閣 學士)에 제수되므로 음보의 시기는 ①공훈음보(功勳蔭補)를 받는 1129년과 ②개원음보(開元蔭補)가 행해지는 1131년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건염 4년(建炎, 1130) 8월 신해일에 집에서 병으로 돌아가셨는데 춘추가 80세였다. …(중략)… 네 아들을 두셨다. 순척은 초청대부(朝請大夫)로 휘유각 대제(徽猷閣 待制)를 맡고 있다. 순유, 순신은 영리하여 이름이 있다. 순거는 적공랑(迪功郎)이다.”<sup>42</sup>

아버지 호함의 묘지명에는 아들들의 관직명이 모두 기재가 되어 있다. 1128년 적공랑으로 출사한 순거<sup>43</sup>와 1129년 휘유각 대제를 맡은 순척과 달리 순유, 순신은 ‘영리하다(巖然有立)’ 고만 표현하고 있어 아직 관직에 출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호순신은 1131년에 형 순척의 개원음보를 받아 관직에 진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 2) 선교랑 지소산현사(宣教郎 知蕭山縣事)

이후 호순신은 선교랑 지소산현사(宣教郎 知蕭山縣事)으로 승진한다. 선교랑(宣教郎)은 문산계 37계중 26계로 종8품의 기록관이다. 원풍 3년(元豐, 1080)의 관제개혁을 통하여 저작좌랑(著作佐郎), 대리사승(大理寺丞)에게 준 기록관으로 선덕랑(宣德郎)으로 부르다가 정화 4년(政和, 1114)에 개명하였다. 선교랑은 경관(京官)의 기록관으로 호순신이 선인(選人)에서 경관(京官)으로 개관(改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현사(知縣事)는 현(縣)의 지방장관으로 현령(縣令)을 말한다. 소산현(蕭山縣)은 소흥부(紹興府, =越州)의 속현으로 현 절강성 항주시 소산구이다.

「건도중수가보서」에서 호순신은 “신유년(1141)에 아버지의 묘를 찾아가 벼슬하게 된 일을 알렸다”<sup>44</sup> 고 적고 있으며, 형 순척은 소흥임술(紹興壬戌, 1142년)에 순신을 선교랑 지소산현사(宣教郎 知蕭山縣事)에 있다고 했으므로 일치한다. 앞서 음보의 시기를 1131년으로 보았는데 『문헌통고(文獻通考)』를 참고하면 음보로 관직에 오른 무출신자(無出身者)가 개관(改官)하는데 9~10년이 소요되었으므로 역시 일치한다.<sup>45</sup>

38 家譜, 권2 : “… 以兄待制蔭補登仕郎, 歷官至朝議大夫通判舒州見仕宦。 …”

39 송(宋)의 관제(官制)는 선인(選人)-경관(京官)-조관(朝官)의 3단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선인(選人)은 이중 최하위 관료로 지방의 행정실무를 맡았다.

40 기록관(寄祿官)은 관품계(官品階)를 말한다. 송제(宋制)는 우리에게 익숙한 당제(唐制)나 조선제(朝鮮制)와 다르게 관료가 받는 봉록의 품계인 기록관(寄祿官), 명예직인 직(職), 실제 맡은 업무인 차건(差遣) 3가지로 나타내었다.

41 『宋史』 권170, 志123, 職官, 十, 文臣蔭補 : “中大夫至中散大夫 : 子, 通仕郎 : 孫及期親, 登仕郎 : 大功, 將仕郎 : 小功以下, 將仕郎”

42 『新安文獻志』 권91, 「朝散郎致仕胡君咸墓誌銘」 : “建炎四年, 八月辛亥, 以疾終於家, 春秋八十。…(중략)… 四男子, 曰舜步, 朝請大夫, 充徽猷閣待制, 曰舜俞, 曰舜申, 皆巖然有立, 曰舜舉, 迪功郎”

43 家譜, 권2 : “舜舉, 字汝士。行三十四。元祐八年癸酉, 十月十二日, 亥時生。建炎二年登第, 歷官至知南劍州, 轉光祿大夫, 見科第仕宦”

44 家譜, 「乾道重修家譜序」 : “辛酉歲, 舜申營墳黃巖。” 여기서 황암(黃巖)은 가보 본계를 참고하면 아버지 호함이 문헌 황암산(黃巖山)을 말한다.

45 馬端臨, 「文獻通考」, 選舉考, 辟舉條 : “若磨勘應格, 自令錄以上, 今從政郎及六考者, 皆改著作佐郎, 無出身及十考者, 改大理寺丞, 今宣教郎, 舊宣德郎, 政和改今名, 其有功賞者減一考”

### 3) 조의대부 통판서주(朝議大夫 通判舒州)

조의대부(朝議大夫)는 문산계 37계중 15계로 정6품의 기록관이다. 기록관 1계를 승진하려면 보통 3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그는 1142년 선교랑(26계)에서 1165년 조의대부(15계)까지 24년간 11계를 승진하였으므로 음보, 특지 등의 혜택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통판(通判)은 지방장관인 지(知)를 보좌하고 견제하는 부장관이다. 서주(舒州)는 현재 안휘성 안경시(安慶市) 잠산현(潛山縣)이다. 서주(舒州)의 지방지들을 참고하면 호순신과 비슷한 시기에 통판서주(通判舒州)을 지낸 왕안석(王安石, 1021~1086년), 심환(沈煥, 1139~1191년)이 봉의랑의 품계로 부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호순신 역시 선교랑 지소산현사의 임기가 끝나는 1144년경에 봉의랑 통판서주(奉義郎 通判舒州)로 부임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에 현전하는 『지리신법』에 적힌 호순신의 직함은 ‘봉의랑통판서주군주주관학사겸관내관농영전사사비어대(奉義郎通判徐州軍州主管學士兼管內勸農營田事賜緋魚袋)’로 서주(舒州)가 아닌 서주(徐州) 통판을 지낸 것으로 적고 있다. 서주(徐州)는 현 강소성 서주시로 1127년에 북송이 망하면서 금나라에 복속된 지역이다. 따라서 1144년경에 통판의 직책을 맡은 호순신이 금나라의 영토에 지방관으로 부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서주(徐州)는 서주(舒州)를 오기한 것이다.

군주(軍州)는 군주사(軍州事)의 줄임말로 군사(軍事)는 지방군의 업무를 주사(州事)는 민정의 업무를 말한다. 주관학사(主管學士)는 주관학사(主管學事)를 오기한 것이다. 송녕 3년(崇寧, 1104)에 지방관의 직함에 ‘주관학사(主管學事)’라는 4글자를 같이 쓰도록 하였는데<sup>46</sup> 지방관학(地方官學)의 장려책이었다. 송(宋)의 학사(學士)는 고관(高官)의 명예직으로 호순신이 학사(學士)를 지냈다면 지방직에 불과한 통판서주(通判舒州)으로 직함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을 것이다. 관내관농영전사

(管內勸農營田事)에서 영전(營田)은 둔전으로 지방의 둔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 4) 사록관(祿官)과 치사(致仕)

『홍치회주부지』의 기록에는 비어대(緋魚袋)를 받았다는 내용과 태주 송도관(台州 崇道觀)을 함께 맡아보다가 치사하였다는 기록이 적혀있다.<sup>47</sup>

사비어대(賜緋魚袋)에서 비(緋)는 공복(公服)의 색으로 붉은 비단의 색깔을 의미하고, 어대(魚袋)는 허리띠 뒤에 다는 물고기 형상을 수놓은 주머니이다. 비어대(緋魚袋)는 송(宋)의 사록(賜六)에서 최하위의 은전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조관(朝官)에게 주어졌다.<sup>48</sup> 선교랑 다음의 품계인 문산계 25계 통직랑(通直郎, 정8품)부터 조관에 해당된다.

태주(台州)는 현 절강성 태주시이고 송도관(崇道觀)은 천태산동백궁(天台山桐柏宮)의 옛 이름이다. 송에는 노령자와 출사하였지만 관직에 뜻이 없는 자에게 도교궁관(道教官觀)을 관리시키되 실제의 사무는 맡기지 않고 봉록을 주는 사록관(祿官)이라는 제도가 있었다. 치사(致仕)는 70세 이상의 노령자에게 해당되는 정년퇴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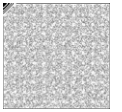
호순신은 1160년에 이미 70세를 넘겼지만 건도을유(乾道乙酉, 1165년)에도 자신을 서주통판으로 밝히고 있다. 1144년 봉의랑으로 조관에 올라 20년을 근속하여 비어대를 하사받고 사록관을 지내다가 치사하였다고 한다면 건도을유(乾道乙酉, 1165년)에는 이미 사록관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성대는 「개서사문의」에서 건도갑신(乾道甲申, 1164년)에 호순신이 ‘한가한 날(暇日)’에 풍수술로 소주성의 성곽을 살피고 「오문충고」를 썼다고 기록하였는데, 호순신이 서주통판의 실무를 맡았다면 소주에서 한가한 날을 지내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상 호순신의 관직생활은 지록사참군(知錄事參軍) → 지현사(知縣事) → 통판(通判)의 순으로 송에서 많이

46 『宋史』, 本紀, 권19, 徽宗趙佶, 권1, 崇寧三年: “八月庚子, 詔諸路知州通判增入‘主管學事’四字”

47 『弘治徽州府志』 권7, 人物志, 胡舜陟: “弟舜申, 字汝嘉。以兄待制陞補登使郎, 歷知蕭山縣。賜緋魚袋, 朝議大夫通判舒州, 兩主管台州崇道觀, 致仕”

48 『宋史』 권170, 志, 권123, 職官, 권10, 賜六



보이는 지방관료의 승진이다. 무출신자의 대부분이 중 7품으로 관직을 마친 것을 감안한다면 상당히 고위직까지 오른 편이다.

## 5. 연보

이상의 내용으로 호순신의 연보를 작성하면 <표.3>과 같다.

# 호순신의 저술

## 1. 『을사사주록(乙巳泗州錄)』과 『기유피난록(己酉避亂錄)』

두 저술 모두 일기류에 해당한다. 『사고전서총목』과

다수의 지방지에 해제가 실려있고 왕명청의 『옥조신지』와 『호소사총집(胡少師總集)』<sup>49</sup>에 전문이 실려있다. 『을사사주록』은 선화을사(宣和乙巳, 1125년)에 사주(泗州)에 있을 때 주면(朱勳, 1075~1126년) 부자와 왕래하면서 휘종(徽宗)이 사주(泗州)에 거동한 일을 보고 기록한 것이다. 『기유피난록』은 책에 따라서 『건염피난록(建炎避亂錄)』으로 적고 있다. 건염기유(建炎己酉, 1129년)에 금나라의 병사가 소주(蘇州)를 공격했을 때 피난한 일을 기록한 것이다.

## 2. 『지리신법(地理新法)』

한국에만 전해지는 풍수지리 저술이다. 태조 2년(1393) 계룡산 신도안이 도읍지로 불가하다는 하륜의 상

표 3 호순신 연보

연도	연호	나이	내용	비고
1091	元祐 6년	1세	휘주 적계(徽州 績溪)에서 태어남	
1122	宣和 4년	32세	부인 왕씨(汪氏) 죽음	
1123	5년	33세	어머니 민씨(閔氏) 죽음	
1125	7년	35세	『을사사주록(乙巳泗州錄)』을 씀	
1129	建炎 3년	39세	『기유피난록(己酉避亂錄)』을 씀. 전란을 피해 호주 귀안현(湖州 歸安縣)에 정착함	
1130	4년	40세	아버지 함(咸) 죽음	
1131	紹興 1년	41세	형 순척의 음보로 관직에 진출 등사랑 엄주부 녹사참군(登仕郎 嚴州府 錄事參軍)을 맡음	추정
1141	11년	51세	선교랑 지소산현사(宣敎郎 知蕭山縣事)를 맡음	
1143	13년	53세	형 순척이 옥사함	
1144	14년	54세	봉의랑 통판서주(奉議郎 通判舒州)을 맡음	추정
1146	16년	56세	아들 위(偉) 태어남	
1164	隆興 2년	74세	『오문충고(吳門忠告)』를 지어 소주성(蘇州城)의 서문(胥門)과 사문(蛇門)을 열어야 한다는 뜻을 밝힘	
1165	乾道 1년	75세	『적계금자호씨가보(績溪金紫胡氏家譜)』의 「건도중수가보서(乾道重修家譜序)」를 씀	
1166	2년	76세	태주 송도관(台州 崇道官)의 사록관(祠祿官)을 지나다가 조의대부 통판서주(朝議大夫 通判舒州)로 치사(致仕)함	추정
1175	淳熙 2년	85세	소주성의 서사문(胥蛇門)을 열어야 한다는 건의가 무산됨	
1177	4년	87세	호순신 죽음 호주 귀안현(湖州 歸安縣)에 묻힘	

49 호순척의 문집으로 후손들이 옛 책들을 참고하여 찬정한 것이다. 부록으로 호순신의 『을사사주록』, 『기유피난록』, 가보(家譜)의 「건도중수가보서(乾道重修家譜序)」와 아들 호위(胡偉)의 「궁사집구(宮詞集句)」를 수록하고 있다. 『속수사고전서』 권1317, 집부(集部)에 실려있으며 권수(卷首)와 부록을 합하여 총 8권이다.

언에서 호순신의 풍수이론이 주요 논리로 사용되었고, 이 의견을 태조가 추인함에 따라 계통산 신도안 천도는 취소되었다. 이 사건 이후 『지리신법』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기론 풍수지리서로 자리잡았고 『청오경』, 『금낭경』, 『명산론』과 함께 지리학관의 시취서로 활용된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필사본을 포함하여 6종의 판본 10부가 전해진다. 서울대 규장각에 5부,<sup>50</sup>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3부,<sup>51</sup> 고려대 중앙도서관에 2부,<sup>52</sup> 성균관대 존경각에 1부<sup>53</sup>가 소장되어 있다. 현재 각 판본의 간사년을 추정하여 선후관계를 고찰하고, 원문교감을 통하여 정본(正本)을 파악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자세히 언급하지 않는다.

『지리신법』은 다양한 이명(異名)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선시대에는 서명보다는 저자명인 『호순신』으로 불렸다. 둘째, 조선왕조실록 성종 16년(1485) 1월 8일에 지리학관 최호원(崔灝元)은 상소문에서 『지리별집(地理別集)』이라 적었다. 셋째, 교서관목활자본, 현종실록자본에는 권수제(卷首題)로 『유집음양제가지리필용선택대성(類集陰陽諸家地理必用選擇大成)』이라 적혀 있다. 넷째, 영조 37년(1761)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등서(謄書) 과정<sup>54</sup>에서 서문에 적힌 “이름을 『지리신법(地理新法)』이라 한다.”는 내용을 『지리신서(地理新書)』로 오기(誤記)하면서 이후 판본까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온 『지리신서(地理新書)』가 있다. 다섯째, 고서목록작성과정에서 채기(採記)된 「지리신법호순신(地理新法胡舜申)」이 있다. 하지만 저자가 서문에 표제명으로 나타낸 『지리신법』이 현재 통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표준서명으로 삼아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지리신법』은 서문과 23편의 본문을 합쳐 2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서관목활자본과 현종실록자본 서문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내가 최근에 부모님이 돌아가시어, 장지를 골라 장사를 치르는데, 처음에는 음양지리설에 밝지 못하여 세속의 직업술사를 보내 장지를 고르게 하였는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 활용하는 법을 물어보았더니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고 고루하였으며 오류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노력하여 세운 법 중에서 좋은 것을 구하여 연구하게 되었다. 무릇 지리가의 책들은 보지 않은 것이 없었는데, 여러 해를 열람하고 나서야 겨우 묘결을 얻었다. 우연히 지자(知者)가 있어서 그것을 검증할 수 있었고, 그의 문하에 들어가 서서히 다시금 추연(推研)하고 불필요한 것을 추려내기를 십 여년 정도 하니 학문의 깊은 경지를 꿰뚫을 수 있을 것 같았다.<sup>55</sup>

앞서 작성한 연보를 참고하면 40세(1130)에 부친상을 치루면서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공부를 시작한 지 십수년이 지난 후 자신의 풍수이론을 정립하고 이를 책으로 남기면서 서문을 쓴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호순신이 봉의랑 통판서주(奉議郎 通判舒州)로 재직하던 시기이므로 『지리신법』의 저작시기는 1144~1147년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유입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하륜이 아버지를 장사지내면서 풍수 관계의 여러 서적을 열람했다고 밝히면서 『지리신법』을 언급한 것<sup>56</sup>으로 보아 하륜이 부친상을 당한 1380년<sup>57</sup> 이전으

50 각 판본별로 청구기호를 나열하면 교서관목활자본(奎中2221), 현종실록자본(奎2229), 희현당철자본(奎中2219), 필사본 ①(奎12707, 奎12708)이다.

51 필사본 ②(K3-424 1, K3-424 7), 필사본 ③(C9B 44)

52 아직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나 교서관목활자본(만송 C10 A84), 희현당철자본(육당 C10 A6)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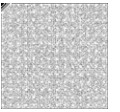
53 희현당철자본(C09-0142)

54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관성감의 제목과 『서운관지』를 참고할 때 풍수지리서는 지리학관의 시취서로 활용할 목적으로만 관간(官刊)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관성감에서 그 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책은 목판인쇄를 하였다. 풍수지리서의 분량이 많지 않은 관계로 목판이 산실된 책은 교서관의 활자로 인쇄하였다. 시간이 촉박하거나 교서관의 업무 등으로 인해 활자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서등본(精書謄本)하였다. 지리학관의 학업, 지사(地師)의 술업(術業) 등에 활용하기 위해 사가(私家)에서 필사하기도 하였으나, 사자원(寫字員)이 정서등본(精書謄本)한 판본과 비교할 때 편집구성과 자양(字樣)에 차이가 있어 쉽게 구별할 수 있다.

55 “予頃丁家艱 擇地營葬 初末晚陰陽地理之說 遺俗工為之 多不可人意 叩其所用之法 卽迂陋而鄙陋者也 因 究求古人用心立法之善者 凡地理家書 無所不窺 屢閱歲時 纔獲妙訣 偶有知者 指證之 因得其門庭 徐復推研淘汰十餘年 似能臻微闡奧”

56 『조선왕조실록』, 태조 2년(1393) 12월 11일 : “且臣嘗葬臣父 粗聞風水諸書”

57 『浩亭先生文集』 권4, 墓碣銘, “庚申九月, 丁外憂. 辛酉起復. 判典校寺事. 乞終喪. 許之”



로 추정된다.

『지리신법』에 대한 평가는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도 대부분 부정적이다. 조선시대에는 대표적인 이기론 풍수지리서로서 관상감 지리학관의 시취서로 지정되어 국용(國用)의 범규로 자리잡았지만, 당시 사대부들과 술업의 수준이 낮은 지사(地師)들은 지리신법을 비롯한 이기론 항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풍수논쟁을 유발하여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국력을 소비시켰다.<sup>58</sup> 사실 조선시대의 『지리신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위서(僞書), 멸만경 논란 이전에 『지리신법』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와 달리 현대의 부정적인 평가는 본인이 다루고 있는 풍수이론만이 옳다는 풍수학인들의 편협한 학문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행하는 이기론 풍수는 크게 조정동(趙廷棟, 清代)의 『지리오결(地理五訣)』에 실린 88항법 이론에 기반을 둔 학파와 심소훈(沈紹勳, 1849~1906년)의 현공풍수이론에 기반을 둔 학파로 나눌 수 있다. 『지리신법』은 크게는 88항법 학파와 연관성지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론체계를 가지고 있어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지리신법』은 형세론 풍수학과 뿐만 아니라 이기론 풍수학과의 주류에게도 배척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2000년대 초반 김두규를 시작으로 형세론 위주의 풍수학인들이 이기론을 수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리신법』은 재조명되고 있다. 필자 역시 현재 유행하는 88항법, 현공풍수 등의 이론이 아니라 지리신법 이론을 통해서 송대(宋代)와 조선시대에 유행했던 이기론 풍수의 모습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지리신법』은 양균송(楊筠松, 唐代)을 시조로 밝히고 있는 이기론 풍수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어온 역사를 밝혀줄 연결고리라고 본다.

### 3. 「오문충고(吳門忠告)」와 「음양비용(陰陽備用)」

두 저작 모두 중국에만 전해지는 풍수지리 저술이다. 『오문충고』는 호순신이 1164년에 쓴 글로 소주성(蘇州城)의 사문(蛇間)과 사문(蛇門)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풍수지리 사례적용 논문이다. 『오문지』와 『호소사총집』에 전문이 실려있다.

『음양비용』은 호순신이 죽은 이후 원대(元代)에 간행된 풍수지리 저술이다. 진진손(陳振孫, 1183~1262년)의 『직재서록해제(直齋書錄解題)』, 『송사』 「예문지」, 다수의 지방지에 해제가 실려있으며, 『영락대전(永樂大全)』, 『협기변방서(協紀辨方書)』에 인용된 기록이 있다.<sup>59</sup> 해제에 따라 그 권수가 차이를 보이는데 『직재서록해제』는 12권, 『송사』 「예문지」는 13권, 후대의 지방지에서는 15권으로 나타난다. 후대에 작성된 기록일수록 권수가 많아진다. 진진손은 『음양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다.

『음양비용』 12권. 통관서주를 지낸 신안(新安)의 호순신 여가(汝嘉)가 이 책을 지었다. 근본이 지리형법이고 제가(諸家)의 시일(時日) 선택법의 요지가 모두 여기에 있다. 고로 여기에 부기한다.<sup>60</sup>

왕중민(王重民 1903~1975년)은 원각본(元刻本)인 『호선생음양비용(胡先生陰陽備用)』을 아래와 같이 해제하였다.

호선생(胡先生)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지 알 수 없고, 전서(全書)가 대략 몇 권인지도 알 수 없다. 대부분 음양서(陰陽書)를 모아 이루어졌으므로 8권 이후에 『유집제가음양선택기서(類集諸家陰陽選擇奇書)』라고 하였고, 12권 뒤의 별집은 『음양일용지리선택대전(陰陽日用地理選擇大全)』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책을 『음양비용(陰陽備用)』이라 명명하였다.<sup>61</sup>

58 조인철은 계룡산 신도안 천도와 의인왕후(懿仁王后) 장지 선정과정에서 있었던 풍수논쟁에서 지리신법의 적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지리신법의 해석과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평가하였다(조인철, 2005, 앞의 논문, pp.36~46).

59 『永樂大典』 권20197, 諸家選日八十三: 「陰陽備用云, 春庚辛, 夏壬癸, ...」 「協紀辨方書」, 「論用盤針」, 「又胡舜申, 陰陽備用云, 開卷前章言盤針之用 ...」

60 『直齋書錄解題』 권12: 「陰陽備用十二卷, 通判徐州, 新安胡舜申汝嘉撰. 此書本爲地理形法, 而諸家選時日法要皆在焉, 故附於此」

61 王重民, 1983, 『中國善本書提要』, 上海古籍出版社, p.287: 「胡先生不詳何人, 亦不知全書凡若干卷, 蓋節陰陽書而成, 故卷八後題又作, 「集諸家陰陽選擇奇書」. 卷十二後爲別集, 又題作, 「陰陽日用地理選擇大全」, 則因所選之書, 隨在立名, 而全書固應稱爲陰陽備用也」

얼마의 권책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현재 영본(零本) 몇 책이 전해지고 있다.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된 『유편음양비용차곡기서(類編陰陽備用差穀奇書)』(LSB/685)는 지원 3년(至元, 1337)의 판본이며 전15권 중에서 제1~6권 2책이 전해진다. 대만 국립고궁 박물관에 소장중인 『호선생음양비용(胡先生陰陽備用)』(平圖019989)은 원각본이며 7~13권 1책이 전해진다. 왕중민의 해제는 이 판본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일본 동양 문고에도 『호선생음양비용(胡先生陰陽備用)』(III-8-E-14)이라는 동일한 서명으로 7~13권 1책이 전해지며 편저자를 ‘元 胡〇輯’로 밝히고 있다.

장성규<sup>62</sup>는 『음양비용』의 일부분이 분책되어 한국의 『지리신법』이 된 것으로 보았고,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직재서록해제』에 실린 『호수경(狐首經)』 해제에는 호순신의 『음양비용』에 그 전문이 실려있다는 언급이 있는데, 『음양비용』 원각본(平圖019989)에서 호순신의 서문이 있는 『호수경』의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규장각에 소장된 교서관목활자본, 현종실록자본의 권수제가 『유집음양제가지리필용선택대성(類集陰陽諸家地理必用選擇大成)』로 『음양비용』의 권수제와 유사하다.

필자 역시 장성규의 의견에 동의하며 추가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장성규가 확인하지 못한 『음양비용』의 1~6권이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 중인 것까지 확인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유일본 고서인 관계로 실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 역시 후속연구에서 진행될 사항으로 남겨둔다.

## 결론

조선시대 풍수지리는 천도(遷都), 축성(築城), 왕릉의 조성 등 중요한 국가 시책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그 이론상 조상의 묘지선정을 통하여 후손이 발복하게 되므로 왕조의 흥망과 정권교체를 언급하는 참위설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풍수지리서는 널리 반포(頒布)되는 서적이 아니라 출판과 유통이 통제되던 일종의 금서로서 관상감에 소장된 관판본(官版本)을 필사하거나 사제간(師弟間)에 비전(秘傳)되어 전해졌다. 이러한 까닭에 저자 미상이거나 풍수명인의 이름을 가탁한 저작이 많고, 판본에 따라 오탈자가 생기거나 그 내용을 가감한 것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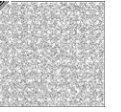
따라서 풍수지리를 하나의 학문으로 정립시키고자 한다면 풍수지리서 원전을 서지학적으로 고증하여 정본(正本)을 선정하고 이를 번역·주석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풍수지리서에 대한 서지학적 고증 작업의 하나로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이기론 풍수서인 『지리신법』의 저자 호순신의 생애와 저술을 고찰하였다. 선행연구와 각종 문헌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 결과 호순신이 1091~1177년간에 실존했던 인물임을 밝힐 수 있었다. 그의 행장을 간략히 적으면 다음과 같다.

호순신(胡舜申). 자(字)는 여가(汝嘉)이다. 1091년 6월 6일 묘시에 적계(績溪, 현 안휘성 선성시 적계현)에서 호함(胡咸)의 아들로 태어났다. 가족으로 남송의 항금명신(抗金名臣)인 형 호순적(胡舜陟, 1083~1143년)과 『초계어은총화(苕溪漁隱叢話)』를 지은 조카 호자(胡仔, 1110~1170년)가 잘 알려져 있다. 금나라와의 전란을 피해 가족과 함께 고향 적계를 떠나 호주(湖州, 현 절강성 호주시) 귀안현(歸安縣)에 정착했다.

나이 40세를 넘겨 형의 음보로 관직에 올라 엄주부 녹사참군(嚴州府 錄事參軍), 지소산현사(知蕭山縣事), 통판서주(通判舒州)를 지냈으며 관직이 조의대부 통판서주(朝議大夫 通判舒州)까지 이르렀고 비어대(緋魚袋)를 하사받았다. 태주 송도관(台州 崇道觀)을 맡아보다가 치사(致仕)했다.

부친상을 치룬 후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공부(公部)를 시작했으며 세상에 전하는 『강서지리신법(江西地

62 장성규, 앞의 논문, pp.167~169.



理新法』이 그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 나이 74세에 「오문충고(吳門忠告)」를 지어 소주성(蘇州城)의 서문(胥門)과 사문(蛇門)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다.

1177년 3월 9일 향년 87세의 나이로 죽어 호주 귀안현 독수봉(湖州 歸安縣 獨秀峯)에 묻혔다. 자식으로 아들 위(偉) 1명이 있으며 광록대부 강서선무사(光祿大夫 江西 宣撫使)를 지냈다. 저술로는 일기류인 『을사사주록(乙巳 泗州錄)』, 『기유피난록(己酉避亂錄)』과 풍수지리 관계저술인 『음양비용(陰陽備用)』, 『지리신법(地理新法)』, 「오문충고(吳門忠告)」가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지리신법』의 서지학적 고증 연구에 필요한 선행연구로서 후속연구의 준거로 사용할 연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교서관목활자본과 현종실록자본 서문에는 나타난 관직명인 통판서주(通判徐州)는 통판서주(通判舒州), 주관학사(主管學士)는 주관학사(主管學事)의 오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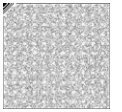
둘째, 『지리신법』의 저작시기는 호순신이 봉의랑 통판서주(奉議郎 通判舒州)로 재직할 시기인 1144~1147년간으로 추정된다.

셋째, 『지리신법』은 『음양비용』의 일부분이 분책되어 전해진 것으로 추정되며, 북경대학 도서관에 소장 중인 『유편음양비용차곡기서(類編陰陽備用差穀奇書)』(LSB/685)의 실증을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승정원일기』, 국사편찬위원회 승정원일기, <http://sjw.history.go.kr>
- 김두규, 2001, 『지리신법』, 장락
- \_\_\_\_\_, 2004, 『지리신법』(개정판), 비봉출판사
- \_\_\_\_\_, 2008, 『풍수강의』, 비봉출판사
- 김철완, 2009, 「조선왕릉에 관한 풍수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남오우, 2008, 「호순신의 지리신법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희춘, 『眉巖先生集』,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무라이마 지준(村山智順), 1931, 『朝鮮의風水』, 조선총독부
- \_\_\_\_\_, 1990, 『조선의 풍수』, 최길성 역, 민음사
- \_\_\_\_\_, 1991, 『한국의 풍수』, 정현우 역, 명문당
- 서거정, 『筆苑雜記』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신채식, 1981, 『송대관료제연구』, 삼영사
- 신흙, 『象村稿』,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안영배, 2003, 「조선조 풍수학 4대고시과목에 나타난 기개념 분석」,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병태, 1990, 「希顯堂鐵字考」 『서지학연구』 5·6합집, pp.23~55.
- 장성규, 2010, 「조선왕조실록의 풍수지리문헌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구, 『寒岡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조인철, 2005, 「풍수향법의 논리체계와 의미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륜, 『浩亭先生文集』,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 호순신, 『地理新法』, 규장각소장본(奎中2219, 奎2229, 奎中2221, 奎12707)
- 『古今圖書集成』, 1984, 중화서국영인본
- 『道光南寧府志』, 中國國家數字圖書館, <http://res4.nlc.gov.cn>
- 『四庫全書總目』, 1964, 중화서국영인본
- 『新安文獻志』, 中國國家數字圖書館, <http://res4.nlc.gov.cn>
- 『宋史』, 1985, 중화서국교감본
- 『永樂大典』, 1986, 중화서국영인본
- 『續溪金紫胡氏家譜』, 1907, 중국 上海圖書館 소장본(청구기호 913808-21)
- 『協紀辨方書』, (文淵閣)四庫全書, 권811, 商務印書館
- 『胡少師總集』, 續修四庫全書, 권1317, 上海古籍出版社
- 『乾隆湖州府志』, 中國國家數字圖書館, <http://res4.nlc.gov.cn>
- 『弘治徽州府志』, 中國國家數字圖書館, <http://res4.nlc.gov.cn>
- 龔延明, 1997, 『宋代官制辭典』, 中華書局
- 馬端臨, 『文獻通考』, 2006, 중화서국영인본
- 范成大, 『吳郡志』 中國國家數字圖書館, <http://res4.nlc.gov.cn>
- 王明清, 『玉照新志』, (文淵閣)四庫全書, 권1038, 商務印書館
- 王重民, 1983, 『中國善本書提要』, 上海古籍出版社
- 殷海衛, 2008, 「胡子世家新考」 『殷都學刊』 2008年 4期, 72~75면
- 陳振孫, 『直齋書錄解題』, 1968, 商務印書館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3, September 2011, pp.44~61  
Copyright ©2011,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A Textual Research on Hu ShunShen (胡舜申)'s Life and Works

Oh, Dong Kee

Dongbang Graduate University Library

Received : 2011. 06. 21 · Revised : 2011. 07. 21 · Accepted : 2011. 08. 08

### ABSTRACT

This study consider the life and works of Hu ShunShen(胡舜申) who was the author of *JiRiSinBub*(地理新法) which the representative FengShui book in Choson dynasty. His adult name is RuJia(汝嘉). He was born in on September 6, 1091 at JiXi(績溪) in China as a son of Ho Xian(胡咸). He left his hometown with his family to avoid war and settled down in HuZhou(胡州). He took up an official post with his brother's YinPu(蔭補), and held several provincial official posts. After serving as vice governor(通判) of ShuZhou(舒州), he became supervisor of taoist temple(崇道觀) in TaiZhou(台州) and retired from office. After burying his father, he took an interest in fengShui(風水) and studied for a long time. People say that *JiangXiDilixinfa*(江西地理新法) is the well-known FengShui book written by him. When he was 74 years old, he suggested opening SheMen(蛇門) gate and XuMen(胥門) gate in SuZhou(蘇州) castle by "WoMenZhongGao(吳門忠告)". But it didn't come ture. He died March 9, 1177 at the age of 87 and was buried in HuZhou(胡州). His elder brother Hu Shunzhi(胡舜陟) and nephew HuZi(胡仔) is well-known. He had a son named Hu wei(胡偉) who served pacification commissioners of JiangXi(江西宣撫使). His Works were *YiSiSiZhouLu*(乙巳泗州錄), *YiYouBiLuanLu*(己酉避亂錄) as essay and *YinYangBeiYong*(陰陽備用), *JiRiSinBub*(地理新法), "WoMenZhongGao(吳門忠告)" as fengShui text.

**Key Words** \_Hu ShunShen(胡舜申), *JiRiSinBub*(地理新法), *YinYangBeiYong*(陰陽備用), "WoMenZhongGao(吳門忠告)" FengShui Book